

지역 소식통

고창군, 도서관 장서점검

고창군 군립도서관 등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관을 계기로 자체 도서관점검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서점검은 분실 또는 훼손된 도서를 확인해 회수·보수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도서의 분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책 정비활동이다.

대상 도서관은 고창군립도서관, 성호도서관, 작은도서관 4개소다. 모두 14만4000여 권의 소장자료를 확인하고 정리하며 이용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서가 재배열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고창=김영식기자

청년 헬리자습 3팀 선정

부안군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 헬리자습' 지원사업 대상자 3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 헬리자습' 지원사업은 부안군의 지역 문제로 대두되는 빈 점포에 창업을 하려는 청년창업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에 건전한 일자리를 공급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6일까지 모집했다.

공모 결과 총 5개의 팀이 접수됐으며 지난 10일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 및 지속 가능성, 운영계획,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3팀을 창업점포로 선정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상중 의원은 '정읍 미래, 청년에게 있다' 청년정책 확대하자, 정상섭 의원은 '문화시설과 홈페이지마다 틀린 정읍사 가사 바로잡자', 이도형 의원은 '정읍시정 3월2일부터 7가지에 대하여', 황혜숙 의원은 '산악단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대책을 강구하자'를 통해 각각 해법마련을 주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코로나 차단 사활

마스크 23만9480매 배부어 5만1502매 추가 보급 다중접촉 종사자·취약계층·임산부 등 1인 2매씩

정읍시가 마스크 5만1,502매를 추가 보급했다.

시는 현재까지 3차례 걸쳐 지역 내 어린이집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일반 시민 등에 23만9,480매의 방역 마스크를 배부한 데 이어 17일 5만1,502매의 마스크를 배부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크거나 감염 시 전파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생각되는 다중접촉 종사자 등에 1인 2매씩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2만2,980매를 보급하고, 대구·경북지역에 1만 매, 공무원·무기직 포함 시 산하 직원에 4,800매, 임산부에 382매, 의회에 2,000매를 지원했다.

또 집단감염 우려가 되는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와 문화해설사, 관광안내해설사, 민원인 응대 최일선에 있는 시청 종합민원실 직원에게 선제적으로 마스크 9,420매를 긴급 배부했다.

더불어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면서 마스크 구매에서 소외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980명에게도 1인 2매씩 총 1,920매의 마스크를 보급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며 구입이 어려워지자 정읍 시민들도 직접 면 마스크를 만들어 보급에 나섰다. 재봉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20여 명은 지난 9

일부터 천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며 마스크 보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

봉사자들이 자체 제작한 천마스크는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면마스크 사용도 도움이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스크 사용 권고에 따라 감염 우려가 크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나홀로 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정읍시의 노력도 돋보인다. 시는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에 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자들로



정읍시는 현재까지 3차례 걸쳐 어린이집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일반 시민 등에 23만 9,480매의 방역 마스크를 배부한 데 이어 17일 5만1,502매의 마스크를 추가 배부했다.

구성된 지원반을 배치해 약사들의 판매를 돕고 있다.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약국 61개소에 1개소당 1명씩을 배치해 줄서기 안내와 마스크 구매자의 신분증 확인, 시스템 입력, 중복구매 여부 확인 등 마스크 판매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판매량 준수 여부 확인에서부터 판매 협조와 함께 수시 모니터링으로 약국의 혼란과 시민 불편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마스크가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함께 외출 후 손 씻기, 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두기,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부안읍 및 행안면 권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민선7기 공약사업인 2020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안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본격화

2043년까지 부안읍·행안면 3000여 세대 370억원 투자

부안군은 부안읍 및 행안면 권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민선7기 공약사업인 2020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에는 군과 (주)군산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용자가 9억 5000만원을 들여 민간위탁사업으로 부안읍 부흥로 서신~서외5마을, 오리정로 오정마을 1.8km 구간에 배관망을 갖추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에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단독주택 등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까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주로 4800여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했지만 2018년부터는 단독주택 위주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단독주택 322세대가 도시가스 혜택을 받고 있다.

군은 기존 LPG에 비해 약 25%정도 값싸고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오는 2043년까지 부안읍, 행안면 일원 단독주택 등 3000여 세대에 370억원을 집중 투자해 부안읍·행안면 권역 주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역농협까지 발급 확대

정읍시, 이달 31일까지 신청

올해부터 정읍시 내 각 지역농협에서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이하 생생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생생카드의 기존 발급처인 농협은행 정읍시지부뿐 아니라 신대인농협 등 5개소의 지역농협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생생카드 발급과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농업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 25세 이상~만 75세 미만(단, 결혼한 자는 만 20세 이상~만 24세이다)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이에 준하는 규모의 축산·임업·어업)이어야한다. 인당 지원 금액은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 15만 원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335억원 들여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도모

정읍시가 올해 335억원을 들여 농업기반시설을 현대화와 농업용수 확보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농로 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지역 농민의 경작 활동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여겠다는 취지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은 8개 분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8개소(14km) 18억 ▲농로포장사업

208개소(80km) 89억 ▲용배수로 정비사업 211개소(43km) 99억 ▲단풍미인 쌀 생산단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42개소 76억 ▲수리시설개보수 11개소 13억 ▲한해미리 농업용수 확보대책사업 6억(저수지 관리시스템 구축 3억 등) ▲저수지 준설 및 물병조성사업 31개소 33억 ▲양수장 신설 3개소 7억을 들인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주꾸미 특화형 바다목장' 추진

'칠산 앞바다' 명성 되찾기 나서

고창군이 '주꾸미 황금어장'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한국수산자원공단, 지역 어촌계장 등이 참석해 '2020년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이길현 고창군농수축산경제국장이 주재한 위원회에서 올해 사업계획과 갯벌 자원조성을 위한 품종 선정, 주꾸미 어장조성 예산배분, 인공어초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올해 주꾸미 산란·성육장 조성과 패류종자를 살포해 수산자원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어업인들도 직접 산란장 설치와 철거 등의 사업에 참여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고창 앞바다 주꾸미는 담백한 특유의 맛에 찾는 사람이 많아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고창군 해역은 옛 황금어장으로 불리었던 칠산 앞바다로 유명했으나 현재는 주꾸미 자원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창군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

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자해 고창군 연안해역의 주꾸미 자원량을 늘리는 '주꾸미 특화형 바다목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 라남군 해양수산과장은 "황금어장으로 불렸던 칠산 앞바다의 옛 명성을 되찾고 어민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